

생활의 밸런스

요즘은 모든 것이 생각 같이 흘러가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다. 생활 용품들 가격이 오른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흔하던 것이 흔치 않고 구하기도 어려운 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 초 거의 두 달 동안 구할 수 없었던 물품을 다시 구하기 위하여 마켓을 찾았으나 결국 구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를 전에 가보니 그 물건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목마름에 물을 마시듯 한 20여개를 바구니에 넣었다. 그것이 없어서 한동안 마음고생을 했기 때문이다. 그 때 내 뒤로 사러 올 사람이 생각났다. 아직 많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나와 같이 고생을 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바구니에 집어넣고 왔다. 이제 한숨을 돌렸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모두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집에 쌓아놓은 것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을 오늘 발견했다. 그중에 하나가 휴지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초기에 사다가 놓은 휴지가 아직도 큰 통으로 4개나 있었다. 아마 그것을 다 사용하려면 1년 가까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욕심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없어서 혼이 난 것도 있고 아니면 미리미리 준비해 둔다는 생각으로 쌓아 놓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 세상에서 나도 생활에 밸런스 잃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하여 쌓아 놓는 일들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날까? 그것은 불안 때문이다. 없으면 불편하고 살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함이다. 그래서 지혜를 짜낸 것이 미리 사다가 쌓아 두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완전할까? 아니다. 또 다른 엉뚱한 것이 부족해서 또 다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쌓아 두기 위하여 마켓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이러한 불안함은 현실의 불안함이지만 내면 저 깊은 곳 나의 중심에 불안함은 아닐까? 걱정이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연결이 안 되는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부족하고 답답할 때에 먼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보다는 내 앞에 있어야 할 풍성함을 더욱 의지하는 습관이 나의 영적인 삶의 밸런스를 잃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의지하기 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나의 열심이 그것을 채워 놓은 만족에 걱정을어버리는 내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되는 일이 되풀이 되다가 보면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황당한 생각도 하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 걱정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또한 내가 채운 것 같은 풍성함도 결국 하나님께서 채워 준 것이 아닌가? 그러니 이제 내가 나의 삶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더욱 확실히 보기 위하여 움직이고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그 걱정도 하나님께 가져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복된 시간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